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대 방문 이주호 교육부장관

“의대생들 집단 휴학계 절대 허가해주지 말라”

의대운영 대학 현장간담회 갖고 집단행동 우려
 “학사운영 지연 피해,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

의대·병원 교수들, “의대정원 확대 실현 불가능”
 사직 고민에 “학생 없는 대학, 교수 존재 의미 없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전북대학교를 찾아 학교 측에 “대학생들의 집단휴학계를 허가해주지 말라”고 요청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전북대학교를 찾아 양오봉 전북대총장 등 대학관계자들과 ‘의대운영 대학 현장간담회’를 갖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했다.

그는 “새하기를 맞으면서 활력이 넘쳐야 될 캠퍼스가 무겁게 느껴진다”면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현장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내에서도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보이고,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돌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학이 갈등과 불안으로 차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해결하는 방안 찾아보고자 (전북대를) 찾게 됐다”면서 “정상적 학사운영이 이뤄지도록 총장이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계 제출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학사운영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학 교육기관으로써 책임과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이어 “집단행동과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의 휴학계를 절대 허가해주지 말아달라”고 대학 측에 요청했다.

한편,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및 전북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전북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북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대화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의미를 가지고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그것만이 학생들을 조속복귀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에서 학생들이 휴학과 유급이라고 하는 사상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학생이 없는 대학에서 교수의 존재의미는 없다. 그래서 사직이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확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원 2,000명을 갑자기 증원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학교 현장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교육은 강의실과 실험실, 임상실습, 병원실습 등 제한 내용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학생을 증원해놓고 거기에 맞춰 교수들을 증원시키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질적으로 좋지 않다”면서 “이런게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확대는 현실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수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비대위는 “교수로서 신분을 갖출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하는데 그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 1년만에 1,000명이 있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직날짜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군산항 기반시설 활용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

전북자치도,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한 6·7부두 지내력 조사
 중량물 부두 조성 위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원할한 추진과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의 기반 시설을 활용해 '해상풍력 배후 항만 거점'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고창, 부안 해역에 총 14조 원이 투자되는 2.4G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중으로 사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상풍력(400MW), 한국전력공사(800MW) 외에 1,200MW 규모의 민간 발전사업자 선정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에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 서해안 지역에는 2030년까지 군산 1.6GW, 인천 6.2GW, 충남 3.1GW, 전남 영광 1.4GW, 전남 신안 8.2GW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배후 항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대형화되고 있고, 주요 기자재의 경우 약 1,000~2,500톤 정도의 초대형 규모로, 중량물 부두 없이는 해상운송이 어려워 해상풍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해서도 배후 항만의 필요성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민간이 운영 중인 군산항 6부두(63, 64선석), 7부두(79, 79-1선석)를 해상풍력 배후 항만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반 지내력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지반 지내력 조사 결과는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배후 항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자료로써 관심 기업에 제공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군산항 7부두(75선석)에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중량물 야적장이 2025년까지 조성될 계획으로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등 해상풍력 주요 자재들을 이곳에서 조립, 보관하게 된다.

야적장 조성으로 해상플랜트 반출 및 서해안 지역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중량물 부두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물동량 산출 용역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립미술관
 '우수 공립미술관' 인증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국내 우수 공립미술관으로 인증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67개 공립미술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인증에서 95.36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미술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노력, 조직 및 인력 관리, 소장품 관리와 전시, 교육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평가인증 고득점 기관 중 오는 22일 문체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우수사례 발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9월 이애선 관장 부임 이후 찾아가는 미술관 14개 시군 공동 개최, 도립극악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소리를 그리다'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 미술관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훈 기자

‘당선 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공직선거법 합헌

헌재 “입법목적 정당성 인정”

당선 무효 시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라고 명시한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

이 청구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이후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선거보전금 반환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265조의2는 당선무효 시 비용 반환에 대한 규정으로 1항에서는 ‘당선 무효된 자는 반환·보전받은 금

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박 전 시장은 선거보전금 반환을 거부하며 관련 법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했다. 이후 해당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2021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일정한 정도 이상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뉴스

다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미래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나의 꿈 나의희망

전북에듀페이

우리의 미래

진로지원비 초6/중3/고3

학습지원비 초2~5/중2/고2
 학교 밖 청소년(9~18세)

입학지원금 초1/중1/고1

초·중·고 학생 ·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위한 교육비 지원